



-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모임

목 차

I.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II.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III. 정책연구모임 결과 및 제안

I. 정책연구모임 사업계획

1. 추진 목적

- 현재의 공립예술단 제반 여건과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등 참여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향후 충남도의 조례제정으로 공립예술단의 수준을 격상시켜 도민의 문화 혜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코자 함.

2. 추진 방향

- 사업대상 : 충청남도내 공립예술단(4개소)
- 사업기간 : 2021년 2월 ~ 2021년 8월 (7개월)
- 사업내용
 -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현장방문 등
 -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제 제안
 -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포

3. 세부사업 계획

① 연구 활동

- 사업개요
 - 충남도내 공립예술단 현황 파악, 도민 문화 욕구조사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연구조사 활동

②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개요

- 충남도내 공립예술단 중 3개의 국악단의 재정비, 교향악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 현장방문 간담회
- 사례조사,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발굴 토론회

○ 사업내용

- 타 시·도 공립 예술단 운영 우수사례 조사 수립과 추진현황 파악
- 타 지역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현황 파악

③ 연구결과 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배포와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연구과제 종합 보고서 발간 (1회)

4.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2021년 1월중)



❖ 정책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2021년 2월 중)

- 조사연구 방향 및 계획 논의



❖ 정책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2021년 3월 중)

- 충남공립예술단의 운영 현황과 여건, 환경 관련 실태 검토



❖ 정책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2021년 4월 중)

- 타 시·도 운영사례 및 현황 검토, 현장방문 대상지 논의



❖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위한 조사, 준비(2021년 5월 중)



❖ 현장방문 실시(2021년 6월 중)

– 현장방문 및 사례학습



❖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 및 토론회 개최(2021년 7월 중)

–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정책 발굴 및 제언



❖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배포 (2020년 8월중)

5. 기대 효과

- 충청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정책의 확산, 관련 조례 제정
- 충청도 공립예술단의 국악단 통합 운영과 교향악단의 수준 향상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혜택의 질 향상에 기여

II. 정책연구모임 활동보고

1.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등록 및 구성

- 2021년 1월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함
- 도의회 3명의 의원과 전문가 7명 등 총 10명으로 회원을 구성함
-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관한 정책 연구모임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대 표	이 종 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회 원	김 기 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김 옥 수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공 우 영	충남국악관현악단(천안) 예술감독	
"	김 진 영	충남연구원 박사	
"	한 상 복	충남 음악협회장	
"	정 현 응	충청남도 문화예술팀장	
"	김 태 경	천안시 문화예술진흥팀장	
"	정 은 숙	공주시 문화예술팀장	
간 사	권 경 애	충남교향악단(공주) 노조 지회장	

2. 1차 연구모임

가. 모임 개요

- 일 시 : 2021. 4. 15.(목) 14:00~15:30
- 장 소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208호)
- 참 석 : 11명(도의원3, 외부전문가5, 관계공무원 3)
- 내 용

〈발 제〉 충남연구원 김진영 박사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종합 토론〉

▷ 이종화 대표 외 참석자 전원

나. 회의 진행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15	15'	◦ 인사말씀 및 연구모임 추진계획	이종화 의원 (연구모임 대표)
14:15	14:30	15'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참석자 전원
14:30	15:00	30'	< 발제 > ◦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김진영 박사 (충남연구원)
15:00	15:30	30'	◦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5:30			◦ 폐회 및 촬영	

< 발 제 문 >

발제 : 김진영 박사(충남연구원)

다. 토론내용 및 회의사진

회 의 록			
회 의 명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1차)		
일 시	2021. 4. 15.(목) 14:00~15:40	장 소	행문위 회의실(208호)
주요 내용 및 의견			
발 제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발제: 충남연구원 김진영 박사) 1. 충남 공립예술단 기본 현황 2. 문제점 3. 공립예술단 운영방안 모색 4. 충남 공립예술단 중장기 운영방안 제안		
총 합 토 론	《전반적 분위기》 ○ 충남 공립예술단과 관련하여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 등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 간 문제점 인식 ■ 이종화 의원 - 교향악단 1개, 국악단 1개로 공립예술단 정리가 필요 - 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제정이 필요 ■ 김옥수 의원 -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 4개의 예술단 운영비가 60~70%인데 지원도 일원화 필요 ■ 김기영 의원 - 코로나로 인해 예술단의 생계 어려움 공감, 연구모임 취지 응원 - 시·군이 주체가 되고 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실태 파악 후 정리가 욕하며 조례 제정은 필요함 ■ 정현웅 팀장 - 재정지원 근거, 형평성 부분 정리가 필요 - 예술단의 수준 향상이 필요하며, 인사와 조직, 공간 문제 해결이 중요		

■ 권경애 간사

- 전문가의 필요성, 예술의 특수성 이해가 필요하나 행정적·예술적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 본인도 충남도립교향악단인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며 소속이 애매하여 소속의 명확화가 필요

■ 한상복 충남음악협회장

- 문화체육관광 부지사도 있는데, 예술의 전당 건립시 재정립이 필요
- 도립에 합창단도 필요, 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임

■ 김종호 공주시 예술팀장

- 조례 제정 필요성은 공감, 공주시 연정국악단은 연습실 등이 매우 열악하며 심지어는 건축물대장도 없음
- 공립예술단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임

■ 김진영 박사

- 통폐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려울 것임
- 국악단 통폐합과 관련하여 3개의 국악단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함. 충분한 공감을 얻은 후 재정이 필요

연구모임 사진



라. 언론보도 내용

뉴스 > 전국

충남 공립예술단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국제뉴스 | 2021.04.15 |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충남공립예술단정책연구모임이발족됐다.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남도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예술단 재정비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은 15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대표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기영(예산2-국민의힘)-김옥수(비례-국민의힘) 의원, 한상복 충남음악협회장과 공우영 충남국악관현악단(천안) 예술감독, 권경애 충남교향악단(공주) 노조 지회장,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김진영 책임연구원의 '충남 공립예술단 현황 및 중장기 운영방안 모색' 주제 발표를 청취하고 현재 공립예술단 여건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도민 대상 문화욕구 파악과 정책 발굴 연구·조사, 공립예술단 수준 격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종화 의원은 "당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립예술단 재정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준 높은 공립예술단 운영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 2차 연구모임

가. 모임 개요

- 일 시 : 2021. 5. 20.(목) 15:00~
- 장 소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208호)
- 참 석 : 15명(도의원 2, 외부전문가 10, 관계공무원 3)
- 내 용 : 현황 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현황 보고〉

- 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 이성철 단원협의회 회장
- ②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 지기현 단무장

〈종합 토론〉

- ▷ 이종화 대표 외 참석자 전원

나. 회의 진행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00	15:05	5'	◦ 인사말씀	이종화 의원 (연구모임 대표)
15:05	15:30	25'	< 현황 보고 > ◦ 공주시충남교향악단 ◦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이성철 단원협의회장 지기현 단무장
15:30	16:30	60'	◦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6:30			◦ 폐회 및 촬영	

〈 발 제 문 1 〉

발제 : 이성철 단원협의회장(공주시충남교향악단)

〈 발 제 문 2 〉

발제 : 지기현 단무장(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다. 토론내용 및 회의사진

회 의 록			
회 의 명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2차)		
일 시	2021. 5. 20.(목) 15:00~16:30	장 소	행문위 회의실(208호)
주요 내용 및 의견			
발 제	1. 공주시충남교향악단(발제: 이성철 단원협의회장) - 교향악단 소개, 운영현황, 보조사업 정산보고, 추진실적 등 2.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발제 : 지기현 단무장) - 현황, 공연실적, 보조사업 정산보고, 추진실적 등		
총 합 토 론	《전반적 분위기》 ○ 공주시충남교향악단과 공주시연정국악단의 애로사항 청취, 조속한 시일 내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 동안 공립예술단과 공주시가 갈등이 심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 이종화 의원 - 소관부서에서 공립예술단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시급함 ■ 김옥수 의원 - 운영현황을 들어보니 문제가 있어보이며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 이성철 협의회장 - 도에서 시에 위탁하고 약 30년이 지나니 단원 부족, 재정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 교향악단 사무국은 평가도 없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단원과 마찰이 많이 발생함. 이에 노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됨 -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고 진정한 교향악단의 면모를 갖게 되길 바램 ■ 김종호 공주시 예술팀장 - 공립예술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아쉬움이 많은 상황임		

■ 정영희 사무국장

- 25년 근무했음에도 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으며, 앞으로 사무직도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권경애 간사

- 상임지휘가자 선정이 현재까지 안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움.
- 단원들의 생각과 공주시 선정이 일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임

■ 정현웅 팀장

- 도, 당사자 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정립 관련 논의할 예정임.
- 도에서도 공립예술단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음

■ 박승희 감독

- 우리 국악단도 사람사는 사회다 보니 문제가 있었으나 역지사지의 자세로 해결함

■ 지기현 단무장

- 연주자들이 연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아쉬움
- 공연예술을 전공한 전문가 등을 뽑아야 할 것임

■ 공우영 감독

- 천안의 경우도 결원이 되면 충원이 안되고 있으며 충원은 고사하고 결원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음. 국악단 통폐합에 대한 로드맵 필요

연구모임 사진



라. 언론보도 내용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이용환 기자 | 승인 2021.05.21 02:22 | 댓글 0 | 기사 더보기

공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
 이종화 의원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기울일 것"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은 2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립 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주제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종화 의원)은 2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주제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이성철 단원협의회장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지기현 단무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가감 없이 소개했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회원들은 비대면 시대에 맞는 공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술인 생계 안정과 창작 지원을 비롯해 향후 충남 공립예술단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화(3선, 홍성2) 의원은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도민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공립예술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공연이 활성화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4. 3차 연구모임

가. 모임 개요

- 일 시 : 2021. 10. 27.(수) 14:00~
- 장 소 :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208호)
- 참 석 : 12명(연구모임 회원 8, 관계공무원 4)
- 내 용 : 현황 보고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현황 보고〉

- ▷ 부여군충남국악단 : 조덕연 행정실장

〈종합 토론〉

- ▷ 이종화 대표 외 참석자 전원

나. 회의 진행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5	5'	◦ 인사말씀	이종화 의원 (연구모임 대표)
14:05	14:30	25'	< 현황 보고 > ◦ 부여군충남국악단	조덕연 행정실장
14:30	15:30	60'	◦ 종합 토론	참석자 전원
15:30			◦ 폐회 및 촬영	

〈 발 제 문 〉

발제 : 조덕연 행정실장(부여군충남국악단)

다. 토론내용 및 회의사진

회 의 록			
회 의 명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의원 연구모임(3차)		
일 시	2021. 10. 27.(수) 14:00~15:30	장 소	행문위 회의실(208호)
주요 내용 및 의견			
발 제	부여군충남국악단(발제: 조덕연 행정실장) - 국악단 소개, 전년도 공연 분석, 추진실적 등		
총 합 토 론	《전반적 분위기》 ○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애로사항 청취, 공립예술단 재편을 위해 결원된 인원을 채용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회원들 간 공감함 ■ 이종화 의원 -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현장방문도 가고 그랬을텐데 다소 아쉬움이 남음 -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례 제정, 공립예술단 재편 등에 힘쓰겠음 ■ 조덕연 행정실장 - 공립예술단 재편을 이유로 부족한 인원을 안뽑는다는 것은 문제임. - 시군별 공연을 가보면 음향, 조명을 맞출 사람이 없어 도민들에게 품격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채용이 시급한 실정임 ■ 공우영 감독 - 인건비 증가 문제가 시급함. 타 예술단도 비슷하지만 충원자체도 되지 않고 있으며 정해진 틀에서 인건비가 증가하면 문화의 질의 낮아짐 - 현재 천안에 상주하고는 있으나 공립예술단이면 도청이 소재한 내포에서도 공연하는 것인 당연한 일인데, 한번도 온 적이 없음 - 기회가 된다면 도민들에게 4개 공립예술단을 문예회관으로 불러 공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음 ■ 정현웅 팀장 - 인력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계획임		

■ 권경애 간사

- 지휘자 등 필수인원도 없으며, 기획할 사람이 없어 연주를 못하는 실정
이 아쉬울 따름임. 교향악단의 내부분열이 조속히 봉합되기를 바람
- 공연할 때 아쉬운 점은 도에 음악과 관련된 파트별 전문가가 시군별
공연시 출장하여 세팅 등을 해주면 좋은 공연이 될 거 같음

■ 한상복 충남음악협회장

- 공립예술단 재편 시 고용승계 부분 등 불안요인은 큰 문제임
- 현재는 기존의 공립예술단 재편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는데 타 시도에도
다 있듯이 합창단 만드는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함

■ 김진영 박사

- 공립예술단 재편은 쉽게 볼 문제는 아님,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서 협의
체 등을 구성해 해결해야 할 것임
- 타 시도의 경우, 고용승계 부분에서 누군가를 해고할 수 없기에 다 안고
가는 실정인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연구모임 사진



라. 언론보도 내용

온양신문
ong.com

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 ID/PW 찾기 | 기자방

사회경제 | 교육문화 | 아산사람들 | 사설,칼럼 | 커뮤니티

최종 편집 : 2022-01-08 오후 01

뉴스 > 정치행정 > 충남도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충남도의회, 부여군충남국악단 현장 목소리 청취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3차 회의

2021년 10월 27일(수) 16:51 [온양신문] [정로복사](#)



↑↑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 온양신문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10월 27일 3차 회의를 갖고 도내 공립예술단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회의는 ‘공립예술단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부여군충남국악단 조덕연 행정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향후 충남 공립예술단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예술단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머지않아 워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온 만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IV. 정책연구모임 결과 및 제안

1. 중장기 운영방안

가. 현재의 공립예술단을 재편하여,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고, 차후 건립될 예술의 전당으로의 이전 필요

- 현재 공립예술단에 대하여 60~70%의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도립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은 기존 공립예술단과의 위상 및 역할의 충돌, 재정적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나. 4개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마련

-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4개 공립예술단간 운영 및 관리 방식에 편차가 있으며, 특히 임금체계, 수당, 근무시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술단간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도립예술단 전환을 위해서는 통합지침 마련 필요

다. 충청남도의 지원 및 관리기능 강화

- 현재 공립예술단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예술단의 경우,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군과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통합지침에 따른 지원 및 관리기능을 충청남도에서 수행할 필요 있음
- 충청남도의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운영을 통하여 일원화체계를 만들고, 균형 있는 예술단 활동을 추진

라. 도-시군-예술단-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현재 시군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을 장기적으로 도립예술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지역 예술단체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실시 필요

마. 조례 제정

- 현재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립예술단을 독립예술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해당 시·군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의 개정 및 폐지가 필요

2. 추진 로드맵

○ 충남 공립예술단 중장기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적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일 정	내 용
1단계	~ 2022년 4월	◦ 도-시군-예술단-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 2022년 8월	◦ 통합지침마련
2단계	~ 2023년 1월	◦ 도 조례제정 및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독립화 - 도 직영 운영
	~ 2025년 1월	◦ 도 조례개정 및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의 독립화 - 도 직영 운영
3단계	(~ 2025년 8월)	◦ 충남예술의전당 건립·개관
	~ 2028년 1월	◦ 전문기관으로 이관